

# 용서, 믿음과 사랑으로 April 03

• 누가복음 23:34; 로마서 5:8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용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롬 5:8). 반성의 기미가 있거나 삶이 변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돌아올 것인가는 죄인의 선택입니다(눅 15:20).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돌아올 길을 열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나 반성과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이 돌아와야 용서가 완결됩니다. 사랑은 죄를 용납하거나 덮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테이블에 나아가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뉘우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배제(회개)가 만날 때, 비로소 용서가 완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용서의 전 과정을 주께 온전히 양도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사랑할 수 없고 어리석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나의 전 존재를 위임할 때, 사랑하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뿐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

나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합니까?

- ① 나와 너, 상황을 최선으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까?
- ② 용서의 전 과정을 주께 위임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